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1>보도자료</h1>	부서	학예실
		담당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연락처	010-8402-1718
①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②첨부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③개인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④저작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⑤후속보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군함도 등 일본 산업유산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 증언영상 공개

- 강제동원증언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총회 개최일(16일)에 맞춰 동시 개막. 일본 역사부정 규탄 메시지
- 2004년 이후 정부 및 시민단체가 확보한 피해자 증언들. 최초 공개되는 증언도 다수 있어

-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16일(금),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과동)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과 공동주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일본의 산업유산 시설이 지워버린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증언’한다. 이번 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통해 일본에 ‘전체 역사를 알게 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2015년)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역사부정 실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펼쳐왔다.(2017년 한일시민이 함께 만든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 제작, 2020년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웹사이트 제작·동북아역사재단 협력) 무엇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와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역사와 이에 함께 해 온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성과도 담겨 있다.
- 전시의 특징은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생생한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증언영상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이 수집·소장해 온 구술 기록으로 피해자 본인(유가족)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증언’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군함도(하시마) 등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분들이다.(별첨#1 참고)

- 증언영상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민족문제연구소 수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년 출범) 조사활동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운동 ▲일본 시민단체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과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을 통해 확보됐다. 이 가운데 일본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제공한 故서정우 씨의 증언영상은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이며, 2021년 봄에 촬영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4명의 증언영상(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년 구술채록 사업) 또한 처음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故김규수 씨(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와 중국인 피해자(2007년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 원고) 등의 생전 증언영상도 볼 수 있다. 증언들은 각 주제별 11개의 영상 패널로 나뉘어 시연될 예정이다.(별첨#2. 세부 주제별 증언자)

- 전시는 크게 2부로 이루어지는데, 제1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에서는 증언영상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여정을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 Part.1에서는 식민지 하의 민중,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자리했던 소작농과 ‘남의 집살이’를 전전하던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의 실상을 사료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 Part.2에서는 강제노동 현장의 가혹한 일상을 되짚어 본다. 탄광,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고된 작업에 시달리면서도 부실한 식사와 질병 등 열악한 처우를 견뎌야 했던 피해자들의 노동환경을 다룬다.

△ Part.3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구타와 가혹행위 등 반인권적인 처우와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룬다. 여기에는 조선인과 더불어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은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 Part.4 에서는 일본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 제공한 강제노동 중국인 포로(故이지창, 故이경운)들의 증언영상과 POW(prisoner of war)연구회가 제공한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 실태도 함께 전시된다.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강제노동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포로, 미국·네덜란드·호주 등 연합국 사람들에게도 가해진 ‘전시 폭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제2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에서는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의 등재논란과 현재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특히, 제2부는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독일 본)에서 일본 산업유산의 침략사적 기원과 폭압적 노무관리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정적 세계

유산과 미래가치> 특별전(민족문제연구소 주최·주관)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폴란드 아우슈비츠수용소, 영국 국제노예박물관 등과 같은 ‘부정적 세계유산(Negative Heritage)’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에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일본 산업유산의 역사부정 실태를 꼬집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금) 전시 개막과 함께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도록 촉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하고, 일본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온라인 한일시민연대 공동행동을 개시하고, 이를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막식은 열지 않는다.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산업유산과 관련한 강제동원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증언, 관계 사료를 소개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시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상 국내), POW연구회,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이상 일본)에서 자료협조를 받았다.

\*전시회 오프닝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rOODx2Vf84>

#별첨1. 증언전 소개 강제동원피해자(19명)

#별첨2. 증언영상 세부주제

#별첨3 전시회 포스터(파일 별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minjok.or.kr>  
· 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historymuseum.or.kr>  
· 이 보도자료에 더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민족문제연구소 (☎ 02-2139-040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minjok@minjok.or.kr

별첨 #1. 증언전 소개 강제동원피해자(19명)

	동원지	피해자	동원시기	동원경위	비고
1	하시마 탄광 (군함도)	故 김삼수 (1922년생)	1941.4.	고성에서 동네주민 160여명과 함께 큐슈 후루카와탄광으로 강제동원. 이후 탈출하였으나 하시마탄광으로 입도함. 1945년 재차 탈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공
2		故 서정우 (1928년생)	1943.4.	논에서 일을 하던 중 3명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 이후 나가사키조선소로 전환배치 됨.	·日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의 사람에 게(世界の人へ)』 1981년 盛善吉 감독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공
3		故 최장섭 (1929년생)	1944.11.	면 모집담당이 찾아와 직접 군청까지 데리고 감.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	·민족문제연구소 구술 수집
4		故 이경운 (1929년생)	1944.6.	(중국인 포로) 팔로군 소속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포로로 붙잡힘.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에 수용되어 강제노동.	·日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 제공
5		故 이지창 (1919년생)	1943	(중국인 포로) 일본군에 저항하는 공작조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붙잡힘.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에 수용되어 강제노동.	·日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연행의 진상을 조사하는 모임 제공
6		이정옥 (1926년생)	1942.3.	시장에 가던 중 일본 형사 2명에게 연행되어 일본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으로 강제동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7	다카시마 탄광	손용암 (1928년생)	1943.11.	속초역 앞에서 사복형사에게 연행되어 사할린 소재 불상 탄광으로 강제동원. 이후 다카시마 탄광으로 전환배치 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8		故 정복수 (1926년생)	1943	마을 구장에 의해 차출되어 사할린 소재 미쓰비시 계열 탄광으로 강제동원. 이후 다카시마 탄광으로 전환배치 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9	나가사키 조선소	김성수 (1925년생)	1943.8.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소재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도중 징용장을 받고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동원.	·나가사키시 상대 원폭피해 (건강수첩 교부)관련 소송(2016)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10		김한수 (1918년생)	1944.7.	전매청(연백전매치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 차출되어 나가사키 조선소로 강제동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9)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11		故배한섭 (1926년생)	1944.4.	일본 후쿠오카현 야하타시 소재 야하타화물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징용장을 받고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동원.	·나가사키시 상대 원폭피해 (건강수첩 교부)관련 소송(2016) 원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12	야하타 제철소	故김규수 (1929년생)	1943.1.	인쇄소에서 일하던 중 징용장이 나옴.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05)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 수집
13		故이천구 (1929년생)	1942.9.	순사와 면서기 등이 찾아와 차출.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14		故주석봉 (1924년생)	1943.9.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 배급을 끊는다는 면 공무원의 협박이 있었음. 이후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3)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 수집
15		故최영배 (1922년생)	1942.11.	면서기에 의하여 동원에 차출 됨. 일본 후쿠오카 야하타제철소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2013) 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술 수집
16	미이케 탄광 /제련소	류기동 (1918년생)	1942.4.	한국인 순경이 위력으로 모집신청 후 일방 통보. 일본 후쿠오카현 미이케탄광으로 강제동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17		손성춘 (1928년생)	1945	마을 내 일거리를 하러가자는 구장의 말에 속아 따라갔다가 일본 후쿠오카 미이케제련소로 강제동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18		손중구 (1923년생)	1943.4.	방직공장에 다니던 중 징용장이 나옴. 일본 후쿠오카현 미이케탄광으로 강제동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구술기록(국가기록원 제공)
19		이영주 (1929년생)	1944.	신의주 압록강변 모래채취에 1년간 국내 동원. 귀향 직후인 1945년 2월 마을 구장에게 붙잡혀 일본 후쿠오카 미이케제련소로 강제동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공(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

## 별첨 #2. 증언영상 세부 주제

구분	주제	내용 설명	증언자
Part1.	식민지에 태어난 죄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침략의 거점인 한반도에서 일본은 사람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 했습니다. 농촌은 몰락했고, 농사지를 땅도 잃어 품팔이로 연명하던 농민들이 징용에 내몰렸습니다. 폭력적인 행정이 뒷받침한 동원과정에서 힘없고 가난한 하층 농민들이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끌려갔습니다.	·영상 페널1 1) 학교도 못 다녔어 : 이영주, 류기동, 손성춘, 최영배 2)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 최영배, 김한수 3) 남의 집 살이 하는거야 : 류기동, 손성춘, 주식봉
	전쟁 동원의 실상	마을의 구장과 면장, 순사나 형사들이 ‘가라면 그냥 가야했다’고 많은 피해자들은 증언합니다.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 모집 관할선 징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동원을 실시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 부족한 행정력은 무리한 폭력을 수반했고, 때로는 납치와 다름없는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페널2 1) 강요와 협박 : 최장섭, 김규수, 이천구, 최영배, 주식봉 2) 속임수 : 김한수, 손성춘 3) 급격과 감금 : 서정우, 이영주, 손용암, 류기동
	징용 가는 길	강제동원 중에는 노무자 동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탄광으로 보내졌고, 그 중에 미이케탄광도 있습니다. 군수생산의 중심 나가사키조선소와 아하타제철소에도 집단적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원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징용을 회피하거나 이동 도중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영상 페널3 1) 트럭타고, 기차타고, 배타고 : 최장섭, 손성춘, 주식봉 2)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 이천구, 김규수, 주식봉, 김한수
Part2.	낮선 환경, 위험한 현장	식민지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동원된 곳은 탄광이었습니다. 기술 훈련이나 안전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쁘게 국가명령에 복종’하도록 정신훈련만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오로지 힘든 육체노동만이 필요한 곳에 조선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낮선 환경, 위험한 현장은 조선인 징용자들의 도주율이 왜 그렇게 높은지를 말해 줍니다.	·영상 페널4 1) 제대로 된 훈련도 없었어 : 김규수, 손성춘, 김성수 2) 시키는 대로 하는 근로봉사야 : 김규수, 최장섭, 배한섭 3) 혼도시 하나만 차고 하는 거야 : 류기동, 손중구, 최장섭, 서정우
	징용 노동자의 비참한 일상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많은 이름의 강제저축으로 떼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겨우 담배나 쌀 용돈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현금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습니.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부분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페널5 1) 벼룩이 새까맣게 올라와 : 최장섭, 배한섭, 김성수, 2) 콩깍묵 지금은 먹지도 못해 : 최장섭, 손중구, 이영주, 주식봉, 정복수 3) 용돈 정도 주는 거야 : 최영배
	창살 없는 감옥, 구속과 탈출	집을 떠난 순간부터 감시와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원된 징용자들은 일본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지리도 모르니 도망은 꿈도 못 꾸었다고 말합니다. 군수제벌 미쓰이와 미쓰비시, 일본제철이 장악한 도시 전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시마탄광의 ‘화장인허증’에는 “매물에 의한 질식사”, “낙반에 의한 두개골 복합골절” 등 징용노동자의 끔찍한 최후가 적혀있습니다.	·영상 페널6 1) 자유가 없어 죄수나 다름없지 : 서정우, 손성춘, 주식봉 2) 도리시마한테 걸리면 반 죽어 : 주식봉, 이영주, 손성춘 3) 탈출, 또 다른 감옥 : 서정우, 최장섭, 이천구, 손용암, 김규수

Part3.	열악한 처우, 예견된 사고	구타 등 폭력에 의한 사망은 “변사”로 위조되었습니다. 높은 사고율과 작업중 사망률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 패널_7 1) 다친 사람 많았어 : 김한수, 손용암, 류기동, 손중구, 최장섭 2) 죽지 않아도 될 죽음들 : 최장섭, 손용암, 김성수
	공습 피해, 원폭 피해	전쟁 말기 군수공장이 밀집한 곳마다 연합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인 노무자 기숙사가 무너졌고, 방공호에 대피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인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죽거나 다친 조선인들 또한 대략 3만 명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영상 패널_8 1) 온 시내가 불바다야 : 주석봉, 김성수, 류기동, 김규수 2)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 : 서정우, 최장섭, 김한수, 배한섭, 김삼수
	목숨 건 귀환	8월 15일 해방은 맞은 징용자들은 당장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부 기업이 노동자들의 귀국을 돕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돌아갈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길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영상 패널_9 1) 시체 치우며 뱃살을 벌였지 : 이천구, 김한수 2) 바다 귀신이 될 뻔 했네 : 김규수, 손용암
	남기고 싶은 이야기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그들 몫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제는 100세 가까운 고령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은 이제 와 보상이 무슨 소용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의 인정, 진정한 사죄뿐입니다.	·영상 패널_10 1) 남기고 싶은 이야기 : 김규수
Part4.	다 같은 노예 신세였어	일본은 침략전쟁의 장기화와 확대로 부족해진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강제동원 했습니다.	·영상 패널_11 1) 정의를 회복하라, 존엄을 회복하라-중국인 피해자의 외침 : 이지창, 이경운